

■ 최신 해외정보 - 일본 ■

일본의 농산물, 미얀마에서 재배, G-7홀딩스

G-7홀딩스는 올 10월, 미얀마의 유통 대기업인 시티 마트 홀딩스(양곤시)와 일본의 농산물을 재배 및 판매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합니다. 12일에 업무제휴계약을 맺었습니다. 잎 야채와 근채 등 일본의 청과물을 미얀마에서 재배하여 내년 봄에 시티 마트사의 식품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향후 합작회사를 통하여 축산물 분야 사업 전개도 검토할 방침이며 일본 레스토랑 등의 미얀마 진출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니스톱, 미얀마 진출 연내에 1호점

미니스톱은 미얀마에 진출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현지 소매 대기업인 시티마트 홀딩스와 제휴 협상을 추진하여 연내 진출할 생각입니다. 시티마트와 사업전개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시장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호점은 연내에 양곤 등 대도시에서 오픈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화 진전과 함께 소비 시장의 성장이 기대할 수 있는 미얀마에는 100엔숍인 오쿠라(大倉) 산업이 3월 중순에 진출하였습니다. 로손도 3개사 정도의 현지 기업과 제휴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미얀마 대형 은행 지원, 개방을 고려한 제휴도 검토

미쓰이 스미토모(三井住友)은행은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의 민간 최대 은행의 지원에 나섭니다. 일본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현지 칸보저 은행과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투융자 리스크 관리 등 은행 경영 전반을 조언함과 동시에 금융 인재 육성을 지원합니다. 향후 업무 제휴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작년 3월에 발족한 문민 정권이 민주화, 경제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융기관도 일본 기업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현지 체제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은 현지 직원으로 대응해 온 양곤 주재원 사무소에 2011년 4월부터 일본인 소장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올 4월에는 미쓰비시도쿄(三菱東京) UFJ은행도 지금까지 주변국과 겸무시켜온 양곤 주재원 사무소의 소장을 전속으로 변경시켰으며, 미즈호 Corporate 은행도 양곤에 주재원 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은행 이외에도 다이와(大和)증권 그룹과 도쿄증권거래소가 미얀마 중앙은행과 미얀마 최초의 증권거래소 개설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미얀마의 전력부족, 일본에는 절호의 상업 기회, 화력발전 증강으로

미얀마의 전력부족은 미얀마 진출을 노리고 있는 외자 기업에는 불안 요소가 되고 있지만, 일본에는 절호의 상업적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이유로, 테인 세인 대통령이 이라와지강 상류에 중국과 공동으로 건설 중이었던 수력 발전 댐의 공사를 동결시키기로 표명하였습니다. 이를 대신하여 부상한 것이 화력발전소의 증강입니다. 전력 공급 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미얀마 정부는 일본의 J파워 등과의 공동사업 이외에도 개발 프로젝트를 차례로 시작할 공산이 큼니다.

도시바, 한국풍력발전기 제조사 '유니슨'의 최대주주로

도시바(東芝)는 29일,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한국의 풍력발전기 제조사인 유니슨의 최대주주가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취득한 유니슨의 신주예약권부 사채(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제삼자 할당증자를 인수하여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6월 중으로 모든 거래를 마쳐 출자 비율을 34%로 할 방침입니다. 도시바의 유니슨에 대한 출자 총액은 CB 취득분을 포함하여 약 62억 엔에 달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풍차를 공동 개발하고 자사의 판매망을 이용하여 유니슨 제품을 판매하는 등 제휴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NTT, 태양광 발전에 진출, 메가솔라(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3년간 20개소로

NTT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진출합니다. 그룹 소유 유휴지 등을 이용하여 2014년도까지 메가솔라를 약 20개 곳에 가동시킬 계획으로, 총 투자액은 약 150억 엔으로 예상됩니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전력회사가 전량 매입하는 제도가 7월에 시작되어, 이업종 대기업들의 진출도 이어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세라는 IHI 등과 함께 약 250억 엔을 들여 가고시마(鹿児島)에 발전 능력 7만kwht급 메가솔라를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소프트뱅크도 10개 곳 이상에 메가솔라를 건설하겠다고 표명하였습니다.

코나카, 미얀마에서 양복 생산 1.5배로 출점도 검토

신사복 체인점인 코나카(コナカ)는 미얀마에서 양복을 증산합니다. 연내에 생산을 위탁하는 협력 공장을 4곳에서 5곳으로 늘려, 연간 생산량을 현재의 1.5배인 15만 벌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시장 확대를 고려하여 미얀마에 신사복점 오픈도 검토 중입니다.

아오야마(青山)상사도 이미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 양복 생산 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미얀마로부터도 연간 약 30만 벌을 일본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인복 브랜드인 하니즈가 4월 양곤 교외에 부인복 자사 공장을 가동시켰으며, 캐주얼 의류인 유니클로(퍼스트 리테일링)도 미얀마에서의 생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